

향기로 은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선희 강영선(신화순) 김기수 김순석(임영득) 김용주 김재인(이강우) 김정연A(이선빈) 김춘화 김현옥
박순자(이윤수) 박복순 송부현(김영진) 안금자 오영순 오택현 윤병호(양영옥) 윤순한(민국희) 이상희
이영미(유현호) 이종문 정경석(박지순) 정삼래 정옥순 채만기(장은주) 최성현(윤정자) 최정규(김미영)
황상근(정선자)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민호, 강영준(신화사), 김하연, 김태환, 김현민, 박지순(정경석), 송부흥(김영진), 안금자, 이복현(지상건), 이종민, 임지혜(김수환), 정영진(김지자), 정수연, 최정현(유정자), 배드림(전도희)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재 김경업(순정아) 김병을(이영숙) 김순석(임영득) 김정연B(김준식) 김종희(박애순) 김찬희 김준화
인옥희(윤승선) 박부흥(최거남) 박순자(이동수) 박복순 순영화(유호근) 송미선 송부현(김영진) 안지영(백성원)
유영호(현세복) 윤정자(최성현) 이근자 이미자 이선분(김정연A) 이종문 이한철(박희영) 전주순 채명영(서시철)
하세연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김준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준홍 박희영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심순옥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희 이소은 이승예 이아름 이옥남 정승현
정해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무 명

♠ 월정현금

주간 성경연구

35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창세기 15장 12절 ~ 21절		
월요일	창세기 16장 1절 ~ 16절	목요일	창세기 18장 1절 ~ 15절
화요일	창세기 17장 1절 ~ 14절	금요일	창세기 18장 16절 ~ 33절
수요일	창세기 17장 15절 ~ 27절	토요일	창세기 19장 1절 ~ 11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김선희		
찬 양 대	지 위 자	할 켈 시 온 · 루 야 : 김한나 호 엔 나 : 김안나 에 덴 : 최원지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운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김정아		
선 교 사	파송선교사	대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신숙	
		수 리 남 : 안석렬 이성욱	A X 국 : 김해월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미 국 : 최옥희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흥기	태 국 : 박경환 이수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움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살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2. 08. 21.

고난 당하는 자의 호소

옉기 6장 1~13절

설교: 이진우 목사

옴은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옴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려 주고, 자신의 **감정에** 공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옴의 호소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깊은 내면을 대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고난 당하는 자들의 심정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고난 당하는 자들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난 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여 참된 위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난 속에 있는 **옴의 심정**은 과연 어떠한가?

1. 옴은 낙심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옴은 엘리바스의 조언자들은 후에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길임을 하소연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과 그로 인한 괴로운 심정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옴의 내면에는 고난이 가져온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옴은 자신의 고통에 소금음이 실거울 음식을 먹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죽음이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을 불평 섞인 어조로 쏟아 냈습니다. 옴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감정들을 쏟아 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옴은 자신의 이러한 불평에 대해 친구들의 이해와 공감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친구들이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옴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부정적이고 객관적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에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억누르기 어렵고, 더 나아가 불평이나 원망으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있고, 우리의 육체나 마음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그들이 쏟아 놓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듣는 것도 때론 우리 또한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옴의 친구들은 옴의 호소를 무시함으로써 책임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커 기쁨이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이해의 말로, 참된 긍정의 말로 다가간다면, 고통 가운데 낙심하던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지금 몸은 무력하여 우울합니다.

오히려 더 이상 자신에게 건달질이 남아 있지 않음을 한탄하며 우울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
 도, 영혼도 무력해졌다고 호소합니다. 그는 엄청난 비극이 몰려왔을 때조차 하나님을 원망
 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자신의 생명이
 끝나길 바란다고 하소연합니다. 본문에서 옴이 죽음을 바란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고통을 견디고, 참아 낼 만한 육신의 기력도, 마음도, 정신의 기운
 도 남지 않은 상태를 지금 옴은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옴의 무기력한 모
 습을 보면서 언제나 그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않는다고 옴의 마음을 판단하고,
 때로 믿음의 없는 듯한 모습에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놓은 사람들의 무기
 력한 모습에 대하여 성도는 그들이 이러한 모습이나 탄식이,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연
 약한 인생들의 탄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도 그 상함과 환경 속에
 서 때로 고난 속에 그 마음이 요동치고,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온갖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에게도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을 때 여호수아가 믿음의 어려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원문은 이
 전의 개역한 성경이 더 정확히 번역되었는데, 개역한글에서 6-7절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인
 생은 흠으로 만든 육체요, 그 육체 안에 담고 있는 인생도,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약한 존
 재이기에 무엇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케
 성도는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저 연약한 인생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불
 안과 불평, 무기력함과 우울함이 그들의 마음에 생겨났을 수 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도록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영젠가 하
 나님이 반드시 그 삶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면, 그제야 자신이 했던 말들을
 되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처한 사람들이 무기력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도록
 도우려면, 성도는 그들의 곁에서 함께 슬퍼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변에 고통 가운데 진
 정한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성도
 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잡자기 찾아온 고난은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무력함을 가져옵니다. 자신에게 시련을 이길 힘이 없음을 발견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짐을 짊어 줄 것을 바라십니다. 시련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자로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8 – 35

2022. 08. 28.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소서!” [말라기 4장 2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A garden fountain A well of living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답 임 목 사

Senior Pastor

01

Yee

우

Wood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순서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도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9월							
1주 (4일)	최기훈 장로	장윤주 집사	윤영준 장로	최기훈 장로	강영성 장로	김경엽 집사	이미향 권사
2주 (11일)	임만순 장로	홍정훈 집사	강영성 장로	임만순 장로	김병을 장로	최상걸 집사	유옥자 권사
3주 (18일)	담 임 목 사	김종진 집사	김병을 장로	박권재 장로	최기훈 장로	박종삼 집사	이강우 권사
4주 (26일)	최성현 장로	김형국 집사	최기훈 장로	최성현 장로	배경철 장로	장윤주 집사	박순자 권사
예 배 안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